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를 위해 달려가는 (주)포스코건설



▲ (주)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한 스타시티 조감도

1994년 12월 1일 새롭게 출발한 (주)포스코건설의 출범에는 4반세기에 걸쳐 축적한 철강 플랜트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경험인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E&C(Engineering & Construction) 기술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포스코건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업계 최고의 재무건전성 유지는 물론, 포스코의 설립 초창기부터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전통인 도덕성에 입각한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업무혁신을 통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장이 좌우되는 회사가 아닌 어떠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건설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경주하고 있다.

| 박철훈 사업지원그룹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 협력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물론 건축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체, 협력업체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파트를 기획하고, 분양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는 CS (Customer Satisfaction)입니다. 단순히 시공하고 아파트 키를 입주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건설회사의 업무가 끝났던 시대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고객이 입주하여 하지를 접수하고 아파트 단지의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수정해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습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시공수준이 아파트의 품질에 직결되고 건설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저가낙찰에 의한 공사 수주는 전부가 아닙니다. 시공 전 · 후 단계에서 설계검토 능력, 시공, 시운전 기능을 가진 인력 양성하고 고객의 입주 후 신속하고 깨끗한 하자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의 배양 등을 통하여 대형 건설사와 WIN-WIN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한설비건설협회에 하고 싶은 말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와 설비건설업체 간의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는 데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설비건설”지는 각종 법령과 고시, 신기술과 신자재, 건설동향 예측 등 온-오프 라인으로 많은 정보제공에 일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공사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해외공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향후 설비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시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외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해외건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외공사 진출 의지를 가진 설비건설업체는 물론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사업지원그룹은

(주)포스코건설의 기전팀은 2007년 기전지원팀에서 사업지원그룹으로 통합되었고 현재 기전인력은 건축사업본부 82명, 송도사업본부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인원 113명이 견적, 실행예산, 설계, 기술/현장지원, CS 및 건축현장 등에서 회사의 핵심인재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견적부문에서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개산견적 Tool 작성 및 해외견적 대상국가별 기준을 산정하고, 실행부문에서는 실행예산 DB 단가조사 및 실행예산 작성 기준을 수립하며 (주)포스코건설에서 수행하는 모든 현장의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설계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설계기준 수립, 요소기술의 정립, 세대장비사양 기준 및 시공방법과 신자재 개발과 함께 일반설계 및 T/K 설계 진행을 수행한다.

기술부문 및 현장지원 부문에서는 종합기술계획을 진행하고, 현장별 시공토론회, 모델하우스, 목업하우스 품평회, 품질지도점검, 준공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박철훈 사업지원그룹장, 김영하 기전리더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기전인원 전원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포스코건설 신기술 · 신공법은

(주)포스코건설은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매년 종합기술계획을 수립,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실제 건물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신기술을 발굴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기술의 개발에 많은 연구 및 투자를 하고 있다.

■ 초고층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스템 설계 및 LCC 분석

▶ 개요

- 개발기간 : 2005.08~2007.08 (25개월)
- 개발방법 : 위탁연구, (주) 우원엠앤디이
- 연구목표 : 초고층 공동주택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 연구

▶ 확보연구내용

- 초고층 공동주택의 국내외 냉난방 시스템 동향분석
- 냉난방 시스템별 L.C.C 분석
- 시스템별 CFD에 의한 수치해석
 - 냉방성능 비교 분석
 - 환기성능 비교 분석
 - 실내 쾌적성 비교 분석
- 초고층 공동주택의 냉난방 시스템 표준화
- 초고층 공동주택 냉난방 시스템 종합 성능평가
- 초고층 공동주택의 최적 냉난방 시스템 선정

■ 기대효과

- 최적의 시스템을 통한 초기투자비와 관리비의 절감

- 초고층 공동주택 선두주자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및 분양성 향상
- 실내 쾌적 온열환경 및 공기환경 구현으로 입주자 만족도 향상
- 초고층 공동주택 냉난방부분 설계기술 선점

■ 활용방안

- 초고층 공동주택 설계시 냉난방 방식 선정에 활용
- 최적의 표준안 수립으로 설계기준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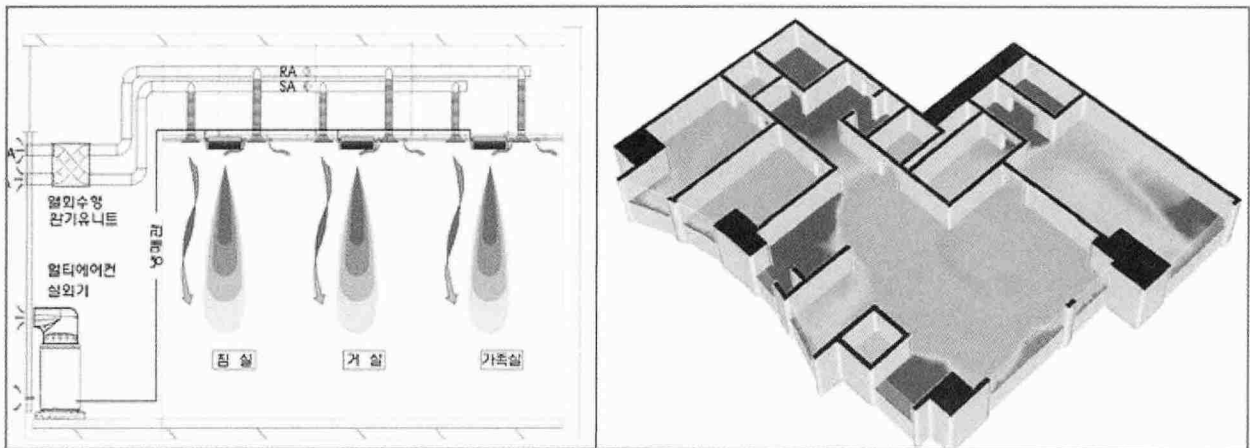
■ 천정형 급수, 급탕 분배시스템 시공

▶ 시스템 개요

- 급수급탕 분배기를 욕실 천정 공간에 노출로 설치하여, 급수급탕 분배기로부터 각 위생기구까지의 배관을 천정 노출 및 벽체 은폐 배관하는 방식

▶ 장단점

- 누수부위 확인이 용이하고, 배관교체 시 마감자재 및 구조물의 손상없이 단기간 내에 작업이 가능
- 타공정과외의 간섭(타 배관과의 교차)이 적고 작업이 단순.



▲ 초고층 공동주택 냉난방 시스템 설계 개요도

- 시공이 단순하여 생산성은 향상되나, 천정작업으로 인해 인건비는 바닥작업에 비하여 30% 할증을 요함.(33평형 기준 고정클램프 100여개 소요)
- 고소작업(천정작업)에 따른 난이도가 비교적 높음

- ⑥ 이중배관을 클램프에 연결하여 배관
- ⑦ 급수급탕분배기에 이중관 연결
- ⑧ STUD에 배관 및 수전구를 고정대에 지지연결
- ⑨ 수압기밀시험

▶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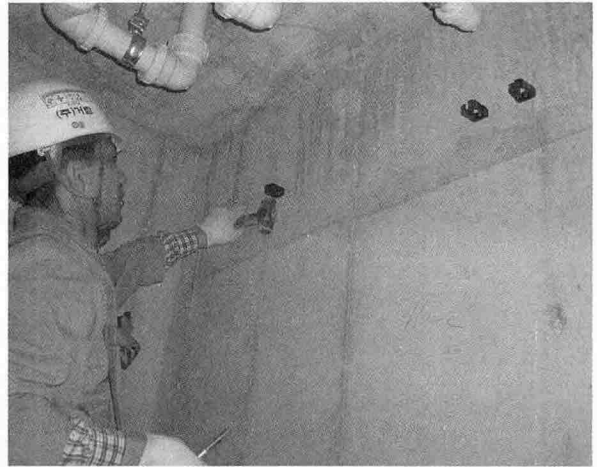
- ① 천정형 급수 급탕분배기 조립
- ② 급수급탕분배기 설치를 위한 양카드릴 작업
- ③ 급수급탕 분배기 천정설치
- ④ CD 배관용 양카 및 클램프 설치
- ⑤ PB배관을 CD 배관에 삽입

협력업체 평가 및 시공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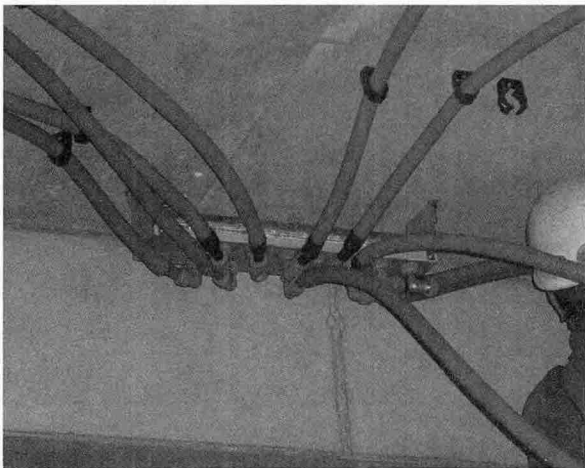
(주)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 투명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e-Procument(전자 공사용역) 시스템을 개발해 협력회사 등록, 계약, 입찰, 기성요청시 협력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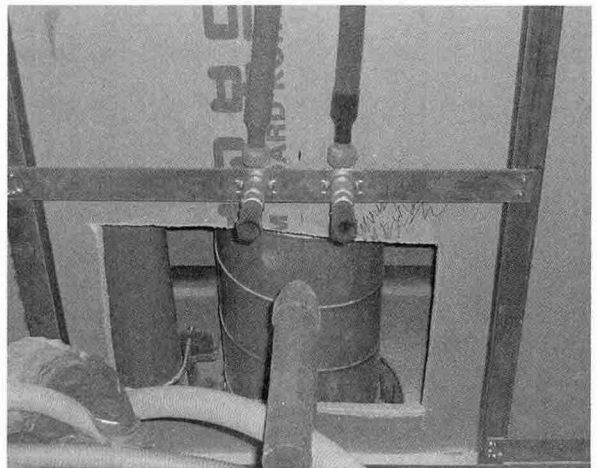
▲ 급수급탕 분배기 천정설치



▲ CD 배관용 양카 및 클램프 설치



▲ 급수급탕분배기에 이중관 연결



▲ STUD에 배관 및 수전구 지지연결

직접 등록하는 등 직접 활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포스코건설은 공사용역에 의한 입찰시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제철소 내 철강플랜트공사에는 적격심사제도를, 그 외 건축, 토목, 에너지 사업본부 발주공사는 저가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저가심의제도는 협력사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함과 동시에 (주)포스코건설은 보다 높은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상생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주)포스코건설 협력업체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협력업체 등록 대상

- 시공능력순위 : 전국 시공 순위 10% 이내
- 신용등급 : BB 이상
- 부채비율 : 공종별 평균이하
- 등록연수 : 2년 단위

■ 공사수행도평가

- 현장 : 연간 분기별 평가(100%)
- 본사 : 안전환경그룹, 품질경영그룹 (+, - 가감)

■ 최우수 협력업체 선정

- 공종별 10% 이내
- 연간 수의계약 1건

▲ (주)포스코건설의 최근 기전 공종별 저가심의 현황

공종명	2006년도		2007년도(상반기 기준)	
	발주건수	저가심의	발주건수	저가심의
건축설비	28	2	11	7
상하수도설비	14	3	4	3
소방	29	2	6	1
전기(일반)	28	6	14	7
정보통신	17	11	2	1

토막상식

화려한 성공? 아니면 편안한 생활? - 여피 족과 슬로비 족

요즘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여피 족(族)과 '슬로비 족(族)' 이 세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여피(yuppie)란 말은 젊음(young), 도시화(urban), 전문직(professional)에서 나온 말로서, 풍요하게 자라나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정착해 고수익을 올리는 인테리 전문직 종사자들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귀공자 풍의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로비(slobbie)는 'Slow But Better Working People(천천히, 그러나 더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에서 이

니셜을 따 만든 용어다. 슬로비 족은 벼락부자를 꿈꾸기보다는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충실하려 애쓴다. 여피 족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로서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는 신흥 부유층이라면, 슬로비 족은 삶의 여유, 행복한 가정, 마음의 평화에 가치를 둔다.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여피 족과 느리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슬로비 족, 당신은 이 중 어떤 쪽에 끌리는지…….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